

구시로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구시로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양식은 조몬시대(기원전 13,000년~기원전 500년)부터 사쓰몬시대(서기 600~1200년)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해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조몬시대 가장 초기의 토기 파편에는 무늬가 없는 것과 표면에 조개껍데기를 눌러 만든 무늬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후의 조몬 토기는 흙에 찍어누른 줄무늬를 특징으로 하였습니다.

토기의 형상은 조몬시대 후기부터 속조몬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해졌으며, 이 시대부터는 접시와 항아리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쓰몬시대의 토기 파편은 더 얇고 표면이 매끄러우며 광택이 납니다. 11 세기의 토기에는 사쓰몬 토기의 형상에 홋카이도 북부와 사할린섬의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의 무늬가 합쳐진 토기가 있습니다. 두 양식의 융합은 홋카이도 동부와 북부 사회 간에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